

#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편의·의료·교육시설 불만 높다

필요 시설 영화관·대형마트·종합병원·지하철·학원 순

일상 생활의 편리성 “만족” 20.5%·“불만족” 5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교육환경을 비롯한 편의·의료서비스 등의 정주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공공기관과 직원들이 이주해 온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가장 취약한 정주여건 분야는 ‘편의·의료서비스 환경’(38.0%)으로 꼽혔다. 이어 여가활동환경(29.9%), 교육환경(18.4%) 순이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는 영화관(59건), 대형마트(43건), 종합병원(42건), 지하철(23건), 학원(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편리성 불만족이 2배=“만족한다”는 응답은 20.5%(매우 만족 0.9%, 약간 만족 19.7%)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0%(매우 불만족 8.1%, 다소 불만족 32.9%)였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만족한다’는 응답률의 2배였다. 항목별 조사 중 주거지역의 청결도 만족도에서는 42.5%(매우 만족 13.2%, 약간 만족 30.3%)로 비교적 높았지만, 일상 생활의 편리성에서는 만족도 응답률이 16.2%(매우 만족 3.4%, 약간 만족 12.8%)에 그쳤다.

반면, 생활 편리성에서 불만족 응답률은 52.2%로 높았다.

◇편의·의료서비스 환경 개선 목소리 높아=공공기관 편의성은 높지만, 의료기관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과 의료서비스 환경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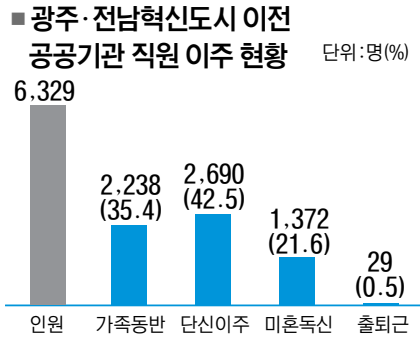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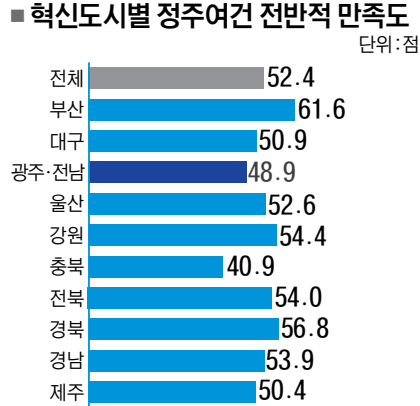
편의·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1.3%였고, ‘약간 만족’은 6.8%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2.1%로 ‘만족한다’의 응답률 보다 6.5배가 높았다. ‘매우 불만족’응답률은 14.5%, 다소 불만족은 37.6%였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매우 만족 1.3%, 약간 만족 4.7%)만이 ‘만족한다’고 답을 했고, 67.5%(매우 불만족 29.9%, 다소 불만족 37.6%)는 ‘불만족한다’는 의사를 표실했다.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불만족하다는 답을 했다.

전체 응답자의 69.6%(매우 불만족 31.6%, 다소 불만족 38.0%)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배차



불만=주차시설 및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대중교통 배차간격 및 노선체계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교통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3%에 불과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7.3%였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0.3%였다. ‘매우 불만족’ 18.8%, ‘다소 불만족’ 41.5%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속철도 운행 횟수 및 시간,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접근성, 대중교통 노선 체계 및 배차간격, 시외·고속버스 운행노선 및 횟수 등에 대한 불만족이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응답률도 높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0.0%였다.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전반적인 교육시설 부족과 유아 보육시설 부족, 초·중·고등학교 시설 부족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여가활동환경 불만도 높아=이주하기 전 거주지역 대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만족한다는 질문에는 8.1%(매우 만족 0.9%, 약간 만족 7.3%)가 ‘만족’ 의사를 표시했고, 불만족하다는 답변은 61.5%(매우 불만족 28.6%, 다소 불만족 32.9%)로 조사됐다. 주변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에 대해 ‘긍정적’ 응답자는 11.5%로, ‘부정적’인 응답자는 50.4%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00) 남한산성

누군가는 흥행에 참패했다고 성급하게 말하는 영화 ‘남한산성’을 두 번 관람했다. 한 번은 팬으로서 이방현 연기를 보기 위해서였고, 또 한 번은 김훈 작가의 원작소설을 뒤늦게 읽고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 영화의 3요소나 시나리오의 중요 요소가 무엇인지 이제는 가물가물하지만 적어도 영화 ‘남한산성’의 압권은 주화파와 척화파로 대표되는 두 연기자가 쏟아내는 대사였던 것 같다. 두 인물의 처절하지만 냉혹하고, 철학적

## 죽어도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면서도 시적인 말들에 깊이 탄식하고 오래 감탄했다.

2007년 초판을 발간한 지 10년 만에 100쇄를 돌파한 소설 ‘남한산성’은 이를 기념하는 아트 에디션에 한국화가 문봉선의 그림을 수록하고 있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영화 속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문봉선(1961~ ,홍익대 교수)의 ‘남한산성’(2017년 작)은 1636년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에서 가장 치열했던 47일간의 역사와 상흔을 기억하고 있는 현장을 질다 못해 검은 빛에 가까운 수묵화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연강 저편으로 남한산성 산줄기와 성곽의 윤곽이 난공

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지만 옛 역사의 한 장이라 생각하니 그 너머 하늘과 맞닿은 산자락이 비장한 울림을 준다.

전통적인 화법과 소재에서 새로운 감성에 맞는 현대 수묵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문봉선교수는 소설의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림 컷 대신 소설의 여운과 여백을 단아한 필선으로 가시화했다. “슬프고 아픈 역사를 써내려간 소설을 읽고 남한산성을 답사하면서 떠오른 영감을 붓으로 불렀던” 문봉선교수의 소설 속 그림들은 “글이 모두 표출하지 못하는 이미지들을 화가가 성심으로 찾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봉선 작 ‘남한산성’(2017년 작).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영화를 두 번 관람하고 소설까지 일독하면서 남은 것은, 적어 봤다 써먹고 싶어지는 대사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죽어도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견뎌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광주비엔날레광주주류부장·미술사박사>

## ‘중도 통합’ 속도 조절…국민의당 “정책연대 우선 논의”

###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호남 의원들 안대표에 쓴소리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보다는 정책 연대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의 통합 반대 여론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반전 카드로 내세웠던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단계적 연대로에 밀리면서 안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서 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중도통합’ 드라이브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국정감사 도중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인데다, 당 지도부가 별다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추진, 논란이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한 당내 공감대 형성 없이 대표나 원내대표가 불쑥 통합론을 제기하고 의견을 떠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기도 맞지 않고 올바른 절차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고 나서 강한 토론을 통해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은 11월 내에 깨지게 돼 있다. 노적(곡식더미)에 불을 질러 놓고 싸라기를 몇 개 주었다고 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우리가 싫다고 나가면 40석도 아니고 도로 30석이 될 수도 있다”고 당내 통합파에 경고했다.

정동영 의원도 선거연대에 대해서 “정책연대와 개혁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다”며 “그러나 선거연대를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마차를 말 앞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수준

을 결정할 것”이라고 통합론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문제도 전반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내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카드가 모두 논란을 빚으며 안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원내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못한 김동철 원내대

표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안 대표 진영에서는 일단 국감 이후 바른정당과의 정책 및 선거연대에 적극적으 나서는 한편 안 대표의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판도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진들도 지방선거 출마 결심을 해 달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뭉치지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7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주민행복을 소중히  
하는 행복자치로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 지방자치가 꽃피다 대한민국이 피어나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합니다

제5회 지방자치의날 박람회

기간 : 2017년 10월 26일 ~ 10월 29일

장소 : 여수 세계박람회장

주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등

주관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www.gak.or.kr  
대한민국시장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